

이란, 금융 민영화 꾸준히 진전

이란 중앙은행이 1979년의 이슬람 혁명 후 처음으로 5억 유로의 채권 발행으로 국제금융시장으로의 복귀를 추진하면서 90년대 중반부터 이란 정부가 추진해온 금융 개방 및 민영화가 새삼스럽게 관심을 끌고 있다.

이란의 은행산업은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장악하여 6개의 상업은행과 4개의 특수은행이 모두 국영이었다. 그러나 순수한 민간부문이 실질적으로는 경제의 10% 밖에 차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자를 금지하는 이슬람 율법과 경쟁이 없는 국영기관이라는 점, 정부의 여신 규제, 공공부문에의 거의 강제적인 여신 등의 특성이 겹쳐 은행산업은 심각한 퇴보를 겪었고 결국에는 낙후된 금융산업이 경제의 장애가 된다는 인식을 가져왔다.

이란 은행산업의 낙후성은 비효율적인 경영, 감독 불충분, 경쟁 부재, 제도 낙후로 요약된다. 정확한 실태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부실자산도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란의 은행

국영은행		민간은행
상업은행	특수은행	상업은행(영업개시 예정)
Bank Melli		
Bank Mellat	Bank Sanat Va Madan	Bank Karafarin
Bank Tejarat	Bank Maskan	Bank Eqtesade-e-Novin
Bank Sepah	Bank Keshavarzi	Bank Parsian
Bank Saderat Va Ostan	Bank Towse Saderat	
Bank Refah Kargaran		

이같은 문제의 해결은 결국에는 민영화에 있다고 보고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한 정부는 1997년에 민간 신용금고 설립을 허용하여 2001년까지 4개의 신용금고가 설립, 운영되었다. 은행과 다른 것은 당좌예금을 취급할 수 없고 수표를 발행할 수 없다는 것뿐인 신용금고는 사실은 이란의 헌법이 민간 은행을 제한하고 있어 민간 은행 설립을 위한 여건의 조성 수단으로서 채택되었던 것이다.

은행민영화를 위한 이러한 노력은 지속되어 2000년 4월에는 민간은행 설립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이 공포되었다. 지금까지 이 법에 따라 민간은행 설립 승인을 받은 3개 은행은 모두 신용금고가 전환하는 것인데, 4개 신용금고 중 은행 전환 신청

을 하지 않은 것은 사회기금 신용금고(Bonyad Credit Institution)이다. 이 금고는 이란 최대의 사회기금인 '상이군인 및 가난한 자 기금'의 계열로서 사회기금의 특성상 이란의 최고지도자인 하메네이의 관할이어서 정식 영업허가를 받기 전부터도 영업을 해왔으며 은행화에 대한 계획도 아직은 알려지지 않았다.

설립 승인을 받은 뒤 최저자본금 요건인 2천억 리알(약 2,500만 달러)을 모집하면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Bank Karafarin은 2001년 12월 영업허가를 받았고 나머지 Bank Eqtesade-e-Novin과 Bank Parsian은 필요자본금이 전액 모집되는 대로 영업허가를 받게 된다.

이 민간은행들은 영업 개시 후 상장 조건이 갖추어지면 테헤란 증권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며, 상장 전 3년간 순이익을 올려야 한다는 상장조건에 따라 빠르면 2005년 중반 경에 상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달리 국영 상업은행인 Bank Saderat와 Bank Refah Kargaran이 민영화될 예정이다. 터키의 사례를 보면 국영 상업은행들의 부실이 경제위기의 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란에서도 전반적인 공공부문의 축소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있으나 정치, 사회적 고려로 실천이 부진한 상태여서 국영 상업은행들의 민영화와 그에 따른 경영 효율화 및 투명화가 긴요한 것으로 분석된다.